

# 國立中央博物館所藏 金銅半跏 思惟像 造成年代에 대한 再考

— 足座 蓮華紋을 中心으로 —

金 和 英

이 半跏像①은 德壽宮美術館과 國立博物館이 통합되기 직전까지 德壽宮美術館에 소장되어 있었으므로 德壽宮美術館 金銅半跏思惟像으로 익히 알려져 있는 우리나라 最大의 金銅半跏思惟像이다. 이 半跏像은 그 크기가 조각 수법에서 우리나라 佛像을 대표할 수 있는 걸작품이므로 여러 차례 해외 전시를 다녀왔고 해외 전시 때마다 절찬을 받아 왔다고 한다. 半跏像의 金銅像으로는 東洋 最大의 작품이며 造形美에 있어 거의 완벽하여 국내외의 학자들에게 일찍부터 주목되었으며 한국의 불상을 소개하는 글에서 거의 모두가 빼 놓지 않고 다루고 있다.

그런데 이 半跏像의 造成年代가 三國時代임에는 이의가 없으나 新羅時代에 속한다는 의견과 百濟時代 것이라는 설이 대두되어 왔다. 新羅時代 作品이라는 주장은 대부분의 日本人 학자들이 먼저 주장하여 국내에서도 新羅說을 그대로 받아들였다②. 高裕燮先生은 百濟作品인지 新羅作品인지 不明이라고 하였으며③ 근래 黃壽永博士의 「百濟半跏思惟石像小考」가 발표된 이래 오히려 百濟時代에 속한다는 說이 우세하여④ 근래에 발표된 글에는 대부분 百濟時代로 추정되고 있다. 하여튼 金銅半跏像이 三國時代의 것임에는 일치하고 있으나 百濟時代에 造成된 것인지 新羅時代에 속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못한 실정이며 근래에는 百

濟說이 더욱 우세함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半跏像의 국적이 百濟냐 新羅냐 하는 百濟說⑤과 新羅說⑥에 대해서는 黃博士의 前記 논문에서 자세히 언급하였으므로 여기서 세삼 再論을 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이 두가지 說은 어떤 학술적인 조사나 자료에 의한 결과를 가지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出土地에 따라서 즉 慶州 翁奉부근이라든가⑦, 慶尙道 부근⑧에서 出土되었다는 傳聞으로 新羅說이 나왔고 또는 忠淸道 벽촌⑨에서 발견되었다는 傳聞에 근거하고 이 半跏像과 크기와 양식이 흡사한 日本의 廣隆寺 木造半跏像이 百濟에서 전래되었다는 설과 더욱 부합되어 百濟說이 강력하게 주장되고 있다. 筆者는 이 半跏像의 造成年代에 대해 足座 蓮華紋에 主眼點을 두고 몇가지 의문점을 제시해 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 글을 발표하는 바이다.

半跏像이라 하면 三國時代에서 統一新羅時代에 걸쳐서 유행하였던 특수한 양식의 菩薩像으로 高句麗, 百濟, 新羅, 統一新羅時代 初期까지 金銅製 또는 石像의 유례를 전하고 있어 우리나라 佛像史 上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半跏像도 三國時代의 것으로 推定되었으나 統一新羅時代에 造成되었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 半跏像은 그 양식이 高句麗의 것과는 전혀 그 계통이 다르므로 아무도 高句麗의 것이라고는 주장하지 않았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전하는 발원지점이나 彫刻의 양식이 中國 南朝 계통이어서 三國期 百濟나 新羅時代의 佛像과 흡사하므로 新羅時代, 혹은 百濟時代의 것으로 추정되어 왔다. 이러한 造成年代의 추정이 어떤 확실한 근거나 양식적인 검토, 학술적인 조사에 의한 것이 아니고 상인들의 傳言에 의한 입수 경위에 의해서 그것도 出土地點이 아닌 발원지점으로 그 국적이 좌우되고 있었다. 筆者는 수년동안 한국 蓮華紋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오던 중 이 半跏像足座의 蓮華紋을 보고 百濟說에 대한 의심을 갖기에 이르렀으며 그 제작 연대에 대한 중요한 실마리가 足座의 蓮華紋에서 풀릴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 半跏像의 足座에 대해서는 黃壽永博士의 「德美 金銅半跏思惟像의 左足과 蓮座」가 수리되었음이 밝혀졌고 原 足座의 蓮瓣과 後補한 足座의 蓮瓣이 그 형태가 다르므로 蓮瓣만 주의해서 보아도 곧 식별이 된다. 黃博士는 後補한 蓮瓣의 형태나 발의 조각 솜씨로 보아 統一新羅時代에 수리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足座의 蓮瓣은 複瓣형식으로 原來의 蓮瓣과 後補된 蓮瓣은 그 형태나 모양, 舌形突起의 크기 등이 판이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原形의 것은 蓮瓣 자체의 윤곽은 둥근 편이고 중앙에 縱線이 있어 蓮瓣을 둘로 나누고 蓮瓣의 끝에는 약간의 反轉이 있으며 舌形突起로 작고 蓮瓣 자체의 볼륨도 작아 극히 평면적이다. 반면 後補된 부분의 蓮瓣은 끝부분에 反轉이 크며 舌形突起도 크고 蓮瓣 자체의 볼륨이 크다. 原形의 蓮瓣은 발 뒷쪽에 三葉 정도 남아 있다. 물론 여기서 문제를 삼고자 하는 蓮瓣은 발 뒤쪽에 남아 있는 原形의 蓮瓣이며 後補한 蓮華座에 대한 논의는 本稿의 주목적이 아님으로 다른 기회로 미루고 論外에 두려 한다

蓮華紋의 양식상 複瓣양식은 三國時代 高句麗, 百濟, 新羅시대에도 두 존재하였다<sup>10</sup>. 그러나 三國에 똑같은 형태의 複瓣이 存在한 것이 아니라 특색있는 형태를 이루고 있음은 다른 美術品에서와도 같다. 다만 계통상으로 공통되는 점은 中國 北魏계통의 양식이 先行하고 末期에 이르러 唐나라의 영향을 받은 형태가 유행하여서 統一新羅時代에도 그대로 답습되는 점이다. 中國 北魏계통이라 하면 끝 부분이 넓어지면서 끝이 뾰족하고 蓮瓣 중앙에 縱線이 있어 蓮瓣을 二分하고 그 가운데 舌形突起가 각각 하나씩 들어있는 형태이다. 三國時代 佛像是 대부분 臺座를 缺失한 예가 많고 또 臺座가 갖추어져 있지 않더라도 單瓣양식이 많아서 複瓣양식의 蓮華座는 그 수가 적다. 부위 蓮瓣계통의 臺座로는 癸末銘金銅三尊佛, 서울 광영대씨 소장 金銅如來立像의 臺座인데 前者는 百濟 末期의 것으로<sup>11</sup>, 後者は 新羅時代의 것으로 추정되었다.

北魏계통의 뒤를 이은 새로운 양식으로 高句麗나 百濟에서 볼 수 있는 中國 唐나라 계통의 複瓣양식이 있는데 그 형태는 蓮瓣의 끝이 둥근

편이고 蓮瓣의 上幅과 下幅의 차이가 거의 없으며 前者와 달리 蓮瓣을 縱線으로 二分하지 않고 舌形突起가 돌 결쳐져 있는 형태로 끝에는 反轉이 보인다. 이런 예는 高句麗나 百濟의 瓦當과 窺岩出土 金銅菩薩立像의 臺座에서 볼 수 있으며 統一新羅時代 초기의 작품인 九黃里三層石塔 內 發見 金製如來座像의 臺座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런데 本 半跏像 足座의 蓮華紋은 上記한 두가지 형식과도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蓮瓣의 윤곽은 끝이 둥근 편이며 上幅과 下幅의 차이가 거의 없으며 唐계통과 같으나 蓮瓣 중앙에 縱線이 있어서 蓮瓣을 二分한 점은 統一新羅時代에 유행하는 複瓣양식과도 같다. 즉 感恩寺址 西三層石塔 內 발견 舍利藏置의 複爐형식과 같은데 感恩寺址 三層石塔 內 발견 舍利藏置의 蓮瓣은 전체적으로 蓮瓣의 볼륨이 커서 입체적이고 舌形突起도 半跏像의 足座에 비해서 크거나 볼륨이 매우 큰 편이며 오히려 半跏像의 예는 感恩寺址의 예보다 훨씬 도안화되었고 세련되어 蓮瓣 자체의 볼륨은 적어서 거의 平面的이고 舌形突起도 크거나 볼륨이 작아 완전히 紋樣化하였음을 알 수 있다. 半跏像의 蓮瓣과 같은 형태의 蓮瓣은 금속제품에서 찾기 보다 오히려 瓦當에서 가장 近似한 형태를 찾을 수 있으니 四天王寺址出土 蓮華紋瓦當이 그 예이다. 그리고 연대가 확실한 石造物 가운데 甘山寺 石造阿彌陀如來立像의 臺座가 비교적 가까운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甘山寺의 例 역시 蓮瓣 內의 舌形突起는 半跏像의 例보다 크며 蓮瓣의 윤곽이나 볼륨이 상당히 비슷한 감을 주고 있다.

蓮瓣은 장식된 유품이나 물질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같은 틀에서 찍어 낸 瓦當의 蓮瓣도 간혹 그 크거나 볼륨이 다를 때가 많다. 이런 佛像의 臺座도 똑 같은 틀에서 만들어 낸 것이 아니면 똑 같은 형태를 이룰리 없고 조금씩의 차이를 나타내기 마련이다. 石造物이나 瓦當에서 同形의 蓮瓣을 찾을지라도 그 형태가 똑 같을 수는 없고 그 크거나 볼륨, 윤곽 등을 참조해서 같은 범주에 넣을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참작할 때 가장 가까운 형태를 위해서 말한 두가지 예를



圖 1. 金銅半跏思惟像 足座 前面蓮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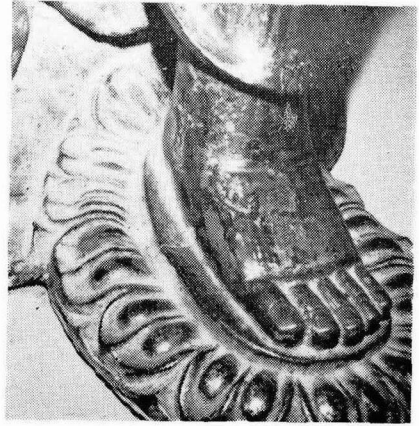


圖 2. 金銅半跏思惟像 足座 側面蓮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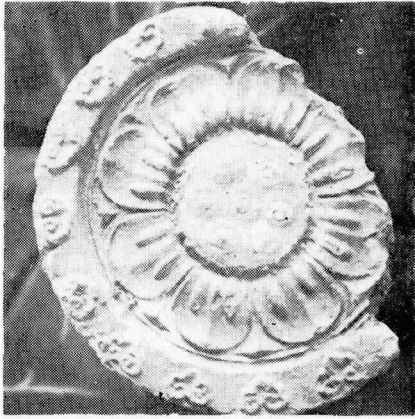


圖 3. 四天王寺址 出土瓦當



圖 4. 慶州九黃里 金製阿彌陀如來坐像 臺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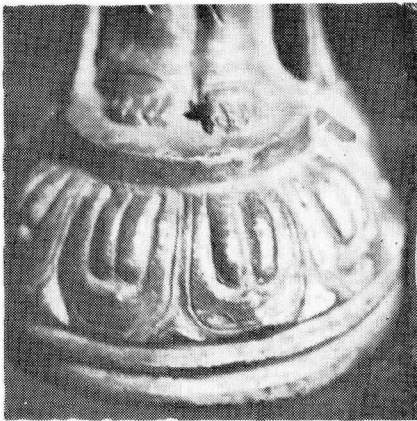


圖 5. 慶州九黃里 金製如來立像 臺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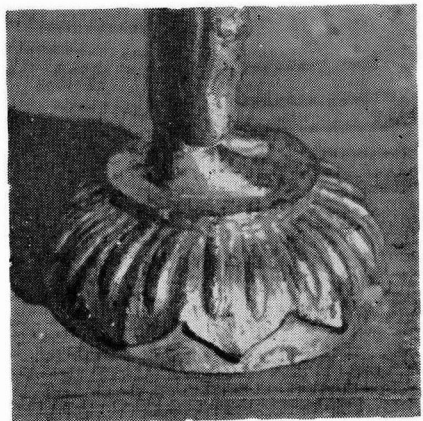


圖 6. 郭英大叢冢 金銅如來立像 臺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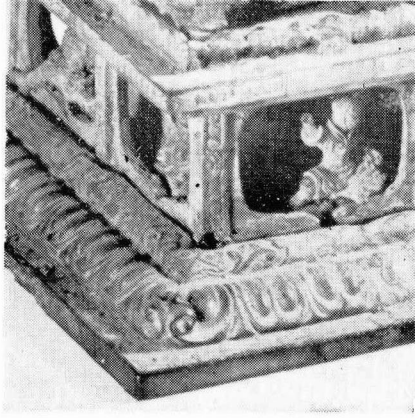


圖 7. 感恩寺址西三層石塔舍利器



圖 8. 甘山寺 石製阿彌陀如來立像 臺座

들 수 있다.

금속제품과 석조물은 같은 형식일지라도 똑같은 시대에 등장하기 보다는 오히려 금속제품에서 먼저 나타나고 石造物이 그보다 늦은 시기에 나타나는 것이 상례이다.

그런데 半跏像의 蓮瓣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三國時代에 존재하였던 複瓣형식과는 전혀 다른 계통이어서 同例를 三國時代의 유품에서 찾기 보다는 오히려 統一新羅時代의 遺物에서 찾을 수 있었다. 三國時代의 蓮瓣은 대부분 불륨이 커서 입체적인데 비해 半跏像의 蓮瓣은 도안화된 세련된 형태를 이루고 있어 時代의 下降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蓮瓣의 양식 하나만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三國시대보다는 오히려 統一新羅時代에 가까움을 알 수 있고 대략 통일신라 초기 즉 六五〇—七〇〇AD 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물론 佛像의 造成年代는 조각 수법이나 형식, 다른 예와의 비교 고찰 등을 참작하여 추정해야만 하며 佛身이나 光背, 臺座 등에서 도한결 같은 시대적인 특징이 나타나야 비로소 정확한 연대가 추정된다. 삼국시대 불상에서 통일신라시대의 대좌가 있을 수 없드시 臺座나 光背는 반드시 佛身의 조각, 수법, 형식과 일치해야만 하고 또 실제로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統一新羅時代 佛像에서 三國時代의 양식이, 아니 三國時代로 착각할 정도로 같은 형식의 작품을 왕왕 볼 수 있다. 이것은 시대가 바뀌어도 萬代의 양식은 한동안 계속되어 과도기에는 新, 舊 두가지 양식이 병존하기 때문이며 高麗 초기의 불상에서도 統一新羅時代의 것과 똑 같은 형식 중 統一新羅시대의 양식을 답습한 예를 볼 수 있다. 이런 면에서 統一新羅時代 초기 불상에서 三國時代 조각 양식을 찾을 수 있고 그 臺座蓮瓣에서 統一新羅時代 형식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臺座의 양식은 佛像의 제작 연대를 추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蓮華座의 경우 蓮華紋이 年代 추정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다음은 발견 지점에 대한 문제인데 충청도에서 발견되면 百濟時代, 慶尙道에서 발견되면 의례히 新羅時代의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많다. 물론 이동이 불가능한 遺品の 경우 발견 지점이 原位置가 되어 年代 추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운반이 가능한 유품은 발견 지점이 반드시 出土地點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발견지점에 따라 제작 연대가 결정될 수 없다. 延嘉七年銘 金銅佛立像은 慶南 宜寧에서 수습되었으나 高句麗 佛像임이 밝혀졌고 忠州에서 수습되어 百濟時代의 것으로 추정되었던 建興五年銘 金銅佛 光背가 최근에 이르러 高句麗 시대라고 그 국적이 바뀌고 있다. 14. 이동이 가능한 불상은 銘文이 있으면 銘文에 의해 소속 국적이 밝혀지고 있으나 銘文이 없는 경우 조각 양식이나 수법에 의해 발견 지점을 참고 하여 제작 연대가 밝혀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발견 지점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경우는 出土品에 한하며 傳來品일 경우 발견지점은 年代 추정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 半跏像이 出土品이 아니라 傳來品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에 발견 지점이 참고는 되지만 연대 추정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정확하기도 못한 추정도 벽존이나 경주의 오릉, 경상도 부근의 발견이라는傳言이 이 佛像 제작 연대에 절대적인 도움을 줄 수는 없다.

세번째 거대한 半跏像의 造成에 대한 문제이다. 三國時代의 半跏像은 一자미만의 소규모의 금동상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新羅에서는 七세기 후반부터 통일신라 초기에 걸쳐 대규모의 半跏石像이 造成되었으니慶州 松花山 半跏石像<sup>15</sup>과 北枝里 半跏石像<sup>16</sup>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특히 後者は 오주름이나 조각 양식이 木金銅半跏像과 흡사하며 足座의 蓮華紋도 複瓣형식임으로 그 양식이 같다<sup>17</sup>. 金銅像의 蓮瓣에 비해 끝에 反轉이 크며 舌形突起나 전체적인 볼륨이 클 뿐이다. 이러한 차이는 金銅像의 경우 足座의 규모가 작아 蓮瓣의 크기도 작으나 石像은 足座가 크며 圓形이어서 장식된 蓮瓣도 조금은 형태상의 차이가 난다. 그러나 舌形突起의 크기나 蓮瓣의 윤곽은 공통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北枝理 半跏像은 統一초기의 것이므로 金銅像을 같은 시기로 생각해서 볼은 결코 무리는 아닐 것이다.

이상과 같이 蓮瓣을 중심으로 고찰하여 불상의 발전 지점이나 거대한 반가상의 조성 등에 관한 문제를 생각해 볼때 과연 三國時代로 그 제작 연대를 추정해야 할지의 문이더 대략 六五〇—七〇〇A, D경에 造成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바이다.

(註)

- ① 黃壽永(一九六〇), 『百濟半思跏惟石像小考』, 『歷史學報』 一三輯, (서울: 歷史學會) pp. 1—111.
- ② 黃壽永(一九六二), 『德美金銅半跏思惟像의 左足과 蓮座』, 『考古美術』, 三卷十一號(서울: 考古美術同人會), pp. 1—15.
- ③ 關野貞, 『朝鮮美術史』, (東京) The Arts Council(一九六二) 『The National Art Treasures of KOREA』 PL. 11 Ministry of public Information Republic of Korea(一九六三) 『KOREAN ARTS』, Vol. 1 painting and sculpture.

鈴木敬, 松原三郎(一九六〇), 『東洋美術史要說』 下, 中國, 朝鮮篇(東京: 吉川弘文館) p. 四二一

③ 高裕燮(一九六六), 『金銅彌勒半跏像의 考察』, 『韓國美術文化史論叢』 (서울: 通文館) p. 一六二

④ 金元龍(一九六八), 『韓國美術史』 (서울: 汎文社) p. 一〇九  
同和出版社(一九七三) 『韓國美術全集』 五, 佛像 (서울: 同和出版社) p. 一三八

中吉功(一九七二), 『新羅·高麗의 佛像』 (東京: 二玄社) p. 六四  
秦弘燮(一九七六), 『韓國의 佛像』 (서울: 一志社) p. 二〇三

⑤ 黃壽永(一九六〇) pp. 七—八  
⑥ 黃壽永(一九六〇) pp. 二—七

⑦ 黃壽永(一九六〇) p. 三  
⑧ 黃壽永(一九六〇) p. 三  
⑨ 黃壽永(一九六〇) p. 七

⑩ 金和英(一九六七), 『三國時代 蓮華紋研究』, 『歷史學報』 第三四輯 (서울: 歷史學會) pp. 六七—一一〇

⑪ 이 佛像에 대해서는五六三年說과 六二三年說 두가지가 있으나 百濟時代에 속하고 있음은 공통된다.

⑫ 이 佛像은 三陽洞出土 金銅菩薩立像(國寶 第一二七號)와 함께 발견 당시에는 百濟時代로 추정하였으나 최근에는 新羅佛로 보는 경향이 많다.

⑬ 朴敬遠(一九六四), 『延嘉七年銘金銅如來像의 出土地』, 『考古美術』 五卷七號 pp. 五—一一

黃壽永(一九七四), 『高句麗 金銅佛像의 新例 二座』, 『李相佰博士回甲紀念論叢』 (서울: 乙酉文化社)

⑭ 『百濟文化의 성과와 방향』, 『웅진친도』 一五〇〇주년 기념 백제문화 학술회의록 『百濟文化』 第七輯(公州: 公州師範大學校부설 百濟研究所) p. 二七三

⑮ 黃壽永(一九六九), 『新羅半跏思惟石像』, 『李弘植博士回甲紀念韓國史學論叢』 (서울: 新丘文化社) pp. 五七八—五九〇

⑯ 黃壽永(一九六九) pp. 五九〇—五九五

⑰ 尹容鎮(一九六六), 『奉化 半跏思惟石像址 發掘 概要』, 『考古美術』 第七卷十號(서울: 考古美術同人會) pp. 三—一九

(梨花女子大學校 博物館 研究員)